

세일·경품 ‘뽕뽕’... 최대 쇼핑 축제 열린다

내일부터 다음달까지 ‘코리아 세일 페스타’... 최대 80% 할인
지역 유통점·22개 전통시장 참여... ‘김영란법’ 시행 영향 주목

광주·전남 일부 전통시장 등이 내수진작을 위해 오는 29일부터 다음달 31일까지 진행되는 대한민국 최대 쇼핑 관광축제 ‘코리아 세일 페스타’(Korea Sale FESTA·이하 KSF)에 동참한다. 하지만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28일 시행으로 소비 심리가 얼어붙어 시장의 반응은 냉담하다.

특히 지난해 코리아그랜드세일 덕분에 15~30%가량 매출신장을 기록한 백화점과 대형할인매장 등은 올해 전년 대비 신장률이 큰 폭으로 떨어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광주·전남지방중소기업청(청장 김영환)은 27일 “관내 22개 전통시장이 범국가적 쇼핑관광축제인 KSF에 참여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에서는 질 좋은 전통시장 상품을 최대 80% 할인하고, 다양한 이벤트와 경품이 마련된다. 우선 광주 대인시장과 강진읍시장을 거점시장으로 지정돼 할인행사와 관광·문화공연 등을 연계한 다양한 행사를 추진된다. 또 양동시장 등 확산시장을 통해 할인판매, 경품 증정 등으로 소비를 촉진하고, ‘전국 전통시장대상 구매 경품 이벤트’도 곁들여진다.

행사 기간 전국 전통시장 어디에서나 방문 또는 물품 구매 후 인증샷 등록하면 대형냉장고, 대형TV, 온누리상품권 등 푸

진한 경품 추첨 지급한다.

또 전통시장 우수상품 판매 확대를 위해 KSF 기간 중 전통시장 온라인 쇼핑몰인 ‘온누리마켓(http://onnurimarket.kr)’에 입점한 5개 쇼핑몰(527점포 2만여 개 품목)이 최대 40% 할인 및 구매고객 경품 행사도 한다.

광주신세계(대표이사 임훈)도 29일부터 다음달 9일까지 패션과 식품, 잡화, 생활 300여개 브랜드에서 최대 70%까지 할인한 특가상품 특집전 ‘와우 프라이스’ 행사를 연다. 기존 패션과 잡화에서 벗어나 식품, 생활장르까지 추가한다.

패션과 잡화 브랜드 50개가 참여하는 ‘3·6·9만원 균일가 특집’도 마련해 최대 70%까지 할인한다.

이벤트도 다양하다. 행사 첫날인 29일 단 하루 동안 ‘만원의 행복 대박 백(Bag)’ 행사를 진행한다. 3만~4만원 상당의 여러 개 인기 가공식품을 하나의 가방(Bag)에 넣어 1만원에 판매한다. 조미료세부터 이탈리아 수입브랜드 파스타 세트까지 주방에서 필수적인 상품이 선보인다.

반면, 행사 기간이 김영란법 시행과 맞물려 지난해의 성과를 이루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광주지역 백화점과 이마트 등은 지난해 코리아그랜드세일을 통해 15~30%가량

■ 2016년 Korea Sale FESTA 지역 참여 현황

지역	시장명	주요행사내용	비고
광주	대인시장	·충장축제 연계 경품행사 ·할인행사(10%)	거점시장
	전남	강진읍시장	
광주	무등시장	·시장 테마축제(망향세일, 경품행사)	확산시장
	봉선시장	·가을철 세일 경품 대전치	
	남광주시장	·충장축제연계 할인행사	
	두암시장	·홍어, 삼합 등 20% 할인행사	
	자동차거리	·공연, 사진전 등 개최	
	경영로시장	·구매금액대별 경품 행사 진행	
	복개상가	·구매금액대별 경품 행사 진행	
	양동수산	·구매통계대별 경품 행사 진행	
	양동시장	·홍보 할인 행사 실시	
	송정매일시장	·경품 지급 및 할인행사(20%)	
전남	나주목사골	·경품 지급 및 할인행사(20%)	확산시장
	남평5일장	·‘엄마야, 누나야 시장가자’ 행사	
	목포청호시장	·각설이 공연 및 이벤트	
	영광매일시장	·국악공연 및 할인행사	
	정남진장흥토요시장	·아간공연 및 통합의학박람회 연계	
	광양5일시장	·경품행사 ·사진콘테스트 및 토요일화공연	
	나주시상가	·경품행사	
	순천아랫장	·할인 및 경품 행사	
	화순읍시장	·대박 Sunday(과일 50%), 경품 ·문화공연	
	목포차없는거리연합시장	·경품행사	

전년대비 매출 신장을 기록했다.

이 지역 한 유통업체 관계자는 “지난해 대대적인 할인행사를 통해 매출이 급증했었는데, 올해는 김영란법 시행으로 소비

가 살아나지 않고 있다”면서 “오래려 지난해 기록적인 신장률이 떨어지는데 올해 매출신장률만 급감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오광록기자 kroh@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2062.82 (+15.71) 금리 (국고채 3년) 1.31% (0.00)
↑ 코스닥 687.99 (+1.23) ↓ 환율 (USD) 1096.50원 (-11.40)

세계 금융사와 공동 비즈니스 모델 발굴

JB 금융그룹 다음달 ‘글로벌 해커톤 대회’ 개최

JB금융그룹(회장 김한·사진)은 글로벌 핀테크 선도 금융사로의 도약을 위해 오는 10월 글로벌 해커톤 형식의 ‘제2회 비상(飛上), 글로벌 해커톤 대회’를 개최한다고 27일 밝혔다.

JB금융그룹은 지난해 4월 은행권 최초로 핀테크 생태계 조성을 위해 실시한 ‘제1회 비상(飛上), 핀테크 경진대회’를 통해 국내 유일의 은행 협업형 P2P 대출 비즈니스인 ‘피플펀드 론’을 출시한 바 있다. 올해는 전 세계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문호를 개방하여 국내 핀테크 외 기타 다양한 분야의 자유주제로 범위를 넓혀 JB금융그룹과 공동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좋은 비즈니스 모델이라면



적극 수용하겠다는 생각이다.

JB금융그룹 김한 회장은 “JB금융그룹 해커톤이 주목받는 이유는 전 세계 핀테크 해커톤 서비스 분야에

서 앞서가고 있는 독일의 TESOBESA와 제휴를 맺고 JB금융그룹 해커톤에 글로벌 참가자들의 참여환경을 조성하는데 있다”며 “수상팀은 물론 참여팀들도 MOU를 맺고 협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아이디어를 현실화하는데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정비 시간 단축...서비스 1위 하겠다”

실라키스 메르세데스 벤츠코리아 사장 취임 1년

“판매 1위가 아니라 서비스 1위가 목표다. 우리의 목표는 최고의 고객 만족도 달성이다”

지난해 9월 1일 취임해 1주년을 넘긴 디미트리스 실라키스(50)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사장이 그동안 공개석상에서 가장 많이 강조했던 이야기이다.

최근 서울 남대문로 서울스퀘어에 있는 벤츠코리아 사장 집무실에서 언론과 인터뷰를 한 실라키스 사장은 고객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소개해 달라는 질문에 “이전에 고객 차량이 정비소에 들어가기까지 평균 6일이 걸렸던 것이 2.2일까지 단축했다”고 말했다. 또 “위낙 판매가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해 서비스 수요가 많이 정출되다 보니 업무시간을

평일 오후 8시까지로 늘렸고, 토요일도 연장근무를 한다”고 설명했다.

이 외에 올 초 기자간담회 약속대로 상반기에 전시장 2곳, 서비스센터 3곳, 인증 중고차 전시장 1곳이 신설됐고 하반기에 전시장 1곳, 서비스센터 5곳, 인증중고차전시장 4곳이 문을 열 예정이다. 연말까지 120개의 워크베이를 추가해 총 753개를 운영할 예정이다.

실라키스 사장은 이와 관련, “AS를 위한 새 워크숍과 정비대를 늘리는 것뿐 아니라, 기존 정비시설의 생산성을 높이는 것도 중요한 문제”라며 “전국적으로 서비스 파트의 역량을 강화해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광주고용전문가 아카데미’

광주상의, 내일 DJ센터

광주상공회의소 광주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는 오는 29일 광주 지평동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광주고용전문가 아카데미’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7일 밝혔다.

광주고용전문가 아카데미는 고용노동부 주관 지역혁신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고용서비스 종사자들의 지역 노동시장 고용현안을 토의하고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전문교육의 필요에 따라 기획됐다.

이번 설명회는 광역 및 기초, 민간기관 고용서비스 담당자 200여명을 대상으로 ▲광주고용전문가 아카데미 추진방향 설명 ▲광주노동시장 및 고용동향 발표 ▲중앙 고용정책 및 지역 거버넌스 역할 특강 ▲차별도 교육계획 수립 수요조사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고용아카데미는 이날 설명회를 시작으로 올해 12월까지 운영되며 고용서비스전문가 ‘도입과정(introduce)’과 ‘심화과정(advanced)’으로 나눠 실시된다. /김대성기자bigkim@



여수NC공장 ‘무사고 4000일’

27일 여수 롯데케미칼 제1공장에서 열린 ‘NC(나프타 분해) 공장 4000일 연속 안전·안전전 기념식’에서 관계자들이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롯데케미칼 제공>

가계부채 한계가구 3년새 22만가구 증가

가계부채 한계가구가 증가세를 이어 가면서 이들이 보유한 부채 역시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주 의원은 27일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 앞서 배포한 자료에서 “가계부채 한계가구와 부실위험가구에 대한 별도의 지원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가계부채 한계가구는 순금융자산이

마이너스(-)이면서 처분가능소득 대비 월리금상환액 비율(DSR)이 40%를 초과하는 가구다.

이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3월 현재 한계가구는 134만2000가구로 2012년 3월 말(112만3000명) 대비 22만가구가 증가했다. 이들의 금융부채는 234조5000억원에 달했다. /연합뉴스

그린맨 파워

남성갱년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린맨 파워

나이 들어도 자신있는 남자 Project

삶의 활력을 찾자!
남성의 자신있는 삶!

기력이 없는 갱년기 남성 건강에 활력을 주는 건강기능식품

MR-10과 소팔메토, 아연의 복합기능성 제품으로

남성갱년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맞춤형 솔루션~!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